

MICE 산업 비전 제시 · 정책 방향 논의

전북글로벌마이스육성센터 출범 기념 '전북특별자치도 MICE 비전선포식 · 활성화 포럼' 22일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전북글로벌마이스육성센터 출범을 기념해 전북특별자치도 MICE 비전선포식 및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9일 재단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북자치도의 MICE 산업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MICE 업계 유관기관의 주요인사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1부 비전 선포식에서는 전북자치도와 국내 MICE 대표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MICE 발전과 K-MICE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목소리를 낸다.

이어진 2부 포럼에서는 '지역성장동력 MICE 육성'이라는 주제로 국내외의 MICE 전문가들이 전북자치도의 MICE 산업 육성과 성공 사례를 발표한다.

특히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장 윤은주 교수가 기초 강연을 통해 지역 MICE 산업의 중요성과 육성 방안을 제시하고, 건국대학교 서병로 교수는 '지역특화 MICE 개발과 육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고양컨벤션뷰로 이상열 사무국장은

MICE 전담 조직의 중요성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대전관광공사 MICE부로 한희정 팀장은 '뷰로 업무 18년의 노하우'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MICE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전북이 글로벌 MICE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글로벌마이스육성센터 (063-230-7467)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현대회화, 미래를 만나다' 기획전시

전주문화재단, 22일~9월 18일 팔복예술공장서 개최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팔복예술공장에서 '현대회화, 미래를 만나다' 기획전을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전시에는 강운, 김영란, 김완순, 김정숙, 박동삼, 송수미, 유봉희, 이유라, 이철규, 전광영, 차중순, 홍남기 등 총 12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한지의 고유한 물성을 활용해 현대적인 조형기법으로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보여줄 예정이다.

더불어 한지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현대적인 감각으로 제작된 작가들의 예술적 역량과 창의성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장 마지막 공간에는 홍남기 작가의 한지를 활용한 미디어 공간으로 관람객들에게 '한지'라는 재료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감성과 휴식의 기회도 제공된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에서는 '한지'를 통해 새롭게 창작성 현대회화를 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한지의 아름다움을 국내외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 개막식은 오는 22일 오후 3시 20분 A동 2층 전시실에서 진행된다.

관람료는 무료며, 사전 예약 없이 현장방



문으로 관람 가능하다. 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창작기획팀 (063-212-88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올해 10만번째 입장객 축하

신예지씨에 김병중 화백 판화 작품 증정

남원시 문화예술과는 지난 8월 16일로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2024년 올해 관람객 10만 번째 입장객을 맞아 축하했다.

미술관 10만 번째 입장객인 신예지(대구광역시) 씨로, 휴식을 위해 미술관을 찾았다가 행운의 주인공이 됐으며, 신예지 씨에게는 김병중 화백의 판화 작품이 증정되었다.

미술관에 한 해에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게 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며, 아직 8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24년에는 12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미술관을 찾아줄 것으로 예상된다.

남원 출신 유명 화가인 김병중 화백이 400점 이상의 작품을 남원시에 무상 기증하면서 건립된 미술관은 2021~2022년 '한국관광 100선'



남원시 문화예술과는 지난 16일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2024년 올해 관람객 10만 번째 입장객을 맞아 축하했다.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공동주최)에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20~30만명의 관람객 유치가 기대되는 '강소형 잠재관광지' (한국관광공사 주

최)로 선정되었고, 국립전주박물관과 공동 주관하는 <국보순회전-조선백자> 유치와 국립민속국악원과 협력 공연 등으로 많은 관람객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동 '뽕'에서의 다채로운 교육·체험 프로그램들은 시민과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아쉽게도 한발 늦게 입장한 이후의 관람객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70명에게 미술관 기념 유리컵과 가방(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후원)을 선물하였으며, 지역 미술관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는 평가에 미술관 관계자는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은 김병중 화백의 작품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연과 생명, 치유와 회복을 전시, 공연, 교육 속에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690회 지평선아카데미 22일 피아노와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22일 제690회 지평선아카데미에 김용진 피아니스트를 초청해 '피아노와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피아니스트는 서울예술고등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뒤 러시아 유학,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해외의 저명한 음악 학교에서 국제적인 감각을 쌓으며 다양한 콩쿠르에서 우승 및 입상했다.

우리에게 친숙한 영화와 광고, 대중가요 속 클래식 음악 소개를 시작으로 시대별 대표적인 클래식 거장들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통해 청중들과 소통하며 호응과 공감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향연' 23일 공연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23일 오후 8시 전당 공연장에서 합천마을문화생산자협동조합(대표 김여명)과 공동으로 전통문화 공연 '향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전주 민속 예술 속 신비로운 존재들을 동화적이고 유쾌한 방식으로 표현해 신들이 단순히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친근한 존재며, 자연과의 조화를 상징함을 관객들에게 전달하는데 중점을 뒀다.

김도영 원장은 "전당은 합천마을과 함께 우리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한 다채로운 전통문화 공연을 연말까지 지속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연은 전주 교유의 민속들을 해학 넘치고 유쾌하게 담아내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시원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부안문화재단, '모두의 여행, 부안' 기획전시

부안군문화재단(이하 재단)은 20일부터 부안역사문화관에서 <2024 부안작은미술관, 부안을 아카이브 하라>의 '모두의 여행, 부안' 기획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곳곳에 미술문화가 도달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시각예술 향유를 목적으로 한다.

<모두의 여행, 부안>은 부안의 지역성과 장소성을 담은 '2024 부안작은미술관' 기획전시의 두 번째 테마이다. 고석만, 김순애, 박선진, 이

유빈, 전지숙 총 5명, 장애인 작가의 변산 풍경화 전시로, 여행을 떠난 작가들의 이야기가 전시에 담길 예정이다. 현장스케치부터 작품을 완성하기까지의 여행 영상부터 작가별로 다르게 표현한 내소사와 비락폭포 작품까지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전시 오픈식은 20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작가와 작품 소개, 작가와의 대화가 진행된다. '모두의 여행, 부안' 전시 관람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전시 기간은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며, 월요일, 공휴일은 휴관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 보절면, 제40회 삼동굿놀이 향토축제 개최

남원시 보절면에서는 지난 18일, 칠월 백중(百中)을 맞아 '제40회 남원삼동(三童)굿놀이 향토축제'가 펼쳐졌다.

남원삼동굿놀이보존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당산제를 시작으로 기세배, 우물굿, 삼동서기, 지네밧기, 합굿 등이 재연되었으며 주민화합행사와 함께 다채롭게 진행되어 주민들과 향우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기회가 되었다.

삼동굿놀이는 개신마을의 뒷산이 닭의 형상

이고 음촌마을 앞의 산이 지네 형상으로 마치 닭을 공격하는 형상을 하고 있어 지네밧기를 행함으로써 태어나는 동자들이 입신출세하고 부귀영화를 얻는다는 풍수설화에 근거한 민속 놀이이다.

남원삼동굿놀이는 1982년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는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2001년에는 지역사회 특성과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바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